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음 8월 1일) 제18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확정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 구속

정부가 김승수(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의 본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대학들도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 국토부·교육부, 국무회의서 내년에 18% 수준까지 적용 매년 3%씩 목표치 인상

는 우선, 내년에 18% 수준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가 필요한 만큼 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간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김 시장은 이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맡으며 법제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담겨있다.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

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 생활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섰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시는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법제화 이전에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논의도 이어왔다.

시는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그동안 일자리에 절박한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주장해왔다.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결정을 계기로 전주는 물론 전북지역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김민근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블랙리스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수사 당시 구속을 피했지만, 재수사의 칼날은 비껴가지 못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 횡령 혐의에 초점을 두고 다시 시작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구속사유를 보면 민 전 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 사법처리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 관광특구 활성화 전북이 최고

도, 문체부 공모서 내장산·구천동 등 도내 2개 특구 모두 선정 국비 7억8800만원 확보...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에서 국비 7억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공모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30개(제주 제외) 관광특구 중 전북도내 2개 관광특구 모두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국 최대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추진,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전체 6지구 중 선정, 그중 전북은 2지구가 선정되었음을 지난 18일 도에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문체부의 심사기준에 맞춰 '도토탈관광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공모사업 선정 초기단계부터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0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 심사에 대비하여 PT발표 자료를 컴퓨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고 지난 8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브리핑했으며, 3차 현장심사를 8월 29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내 관광특구 2지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내장산 관광특구는 9억4600만원(국비 4억7300만원, 시비 4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내장산 관광홍보 기념품과 관광홍보 책자 제작'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내장호 오솔길 야간 경관조

명 설치'에 8억9600만원을 투자, 년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장호를 이용하는 정음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야간 불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6억3000만원(국비 3억1500만원, 군비 3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구천계곡 70리길 삼삼한 이야기 개발과 무주 관광콘텐츠 결합 복합레저 관광상품 개발'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구천동 관광특구 포석정 설치 사업'에 4억2000만원을 투자, 무주 구천동의 물길을 이용한 관광객에 불거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관광특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2015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음내장산 관광특구의 교량 경관 조명 설치 및 집단시설지구 인도변 램프 정비에 5억원과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구천동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와 공모사업 국비 확보는 시설물 노후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도내 관광특구에 단비가 될 것이며, 관광특구 명성에 맞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1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등 지역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 이춘서·안호영 국회의원, 김윤덕·김성주 전 의원,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맞손을 잡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 “힘 있는 자의 펜만으로 역사 기록되는 것 아냐”

유진섭 정음시의회 의장, 동학혁명 기념식서 일침... "사발통문 거사계획, 혁명의 뿌리"

“힘 있는 자의 세치 혀와 펜만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정음시의회 유진섭 의장(사진)이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일 정음 황토현 전적지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동학농민혁

명기념재단과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가 주최한 기념대회가 열렸다.

유진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음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전국의 여러 지역 중 장형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정음을 빼놓고는 동학농민혁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이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한다면 사발통문 거사계획(고부봉기의 시작이 됐던...)은 동학농민혁명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의 소개 책자나 유인물 등에서 사발통문이 소개되지 않는 점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서 정음을 자꾸만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진섭 의장은 “이것은 정음시민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음시민이 갖는 자존심의 문제”라며 “힘 있는 자의 세치 혀와 펜만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 단풍미인 쇼핑몰 추석맞이 기념! 할인대잔치

단풍미인 쇼핑몰에서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잡아라! 남겨별로 타지는 할인혜택!

**블랙데이** 24시간

#### 영절상품권

**잡곡**

- 꾸러미세트 **햇잡곡세트** 19,000원  
백미 2kg, 현미 1kg, 귀리, 흑보리, 통밀 각 500g
- 꾸러미세트 **정음명품꾸러미 선물세트** 18,400원  
1kg×3

**한우 축산**

- 전북최우육종합동조합 **명품실속정육** 61,000원  
77,000원  
불고기,국거리,정조림 총1.8kg
- 단풍미인한우 **꼬리세트** 60,000원  
66,000원

**건강/가공**

- 고모노수세미 **아로니아즙** 38,000원  
30포 48,000원
- 햇빛줄기마을 **취침** 33,000원  
50포 50,000원
- 베리향농조합법인 **동갈진조물떡메리본말** 50,000원  
(30g×3) 15+

**과일/채소**

- 태양농장**
- 햇사과(홍로) 5kg15-18과내 24,000원  
15+

**전통 발효**

- 솔티에떡 **모시송편** 37,000원  
5kg 42,000원
- 선해청한과 **선해청** 19,000원  
100 22,000원
- 선해청한과 **만수우강** 32,000원  
100 38,000원

**다양한 상품구성 최대 50% 할인**

**1차** 9.7(목)18:00-9.8(금)18:00

9.11(월)일괄발송

당일 오전 9시까지 결제 확인된 주문에 한정

내장산향 아로니아본말(100g×6) 50% ↓  
34,000원 42,000원 50한정

두송신말골밀떡 이커시아공(2.4kg) 30% ↓  
55,000원 38,500원 30한정

**2차** 9.21(목)18:00-9.22(금)18:00

9.25(월)일괄발송

당일 오전 9시까지 결제 확인된 주문에 한정

김영인숙신도 **다정선물세트** 41% ↓  
39,000원 23,000원 50한정

내장산향과 **귀리유과** 39% ↓  
28,000원 11,000원 50한정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 택배비 100% 지원(정음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365일! 100% 무료배송